



조계종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기념 연주회가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김희경 예술총감독의 지휘로 진행된 단원들의 연주 모습.



공연에 앞서 진행된 불교음악원 개원식에서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불자와 시민 등 400여 대중들이 모여 경내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를 감상하며 즐거워했다.

# 경내에서 국악 공연... 찬불 음악의 진수 보여줘

##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 연주회

강남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 국악 선율이 울려 퍼졌다. 우육같은 찬불가들이 경내를 휩싸면 관중들은 조용히 눈을 감거나 때로는 어깨를 뭉실거렸고 또 때로는 박수를 쳤다. 모두가 국악으로 연주되는 찬불가에 푹 빠진 듯 즐거워 보였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 기념 연주회가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불교음악원장이자 조계종문화부장인 혜일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 앞서 조계종 산하기관으로 개원하게 된 불교음악원의 현판식과 개원식이 이어졌다.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불교음악원장 혜일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인사말과 환영사가 각각 이어졌다.

불교음악원장 혜일 스님은 “중단사상 처음으로 불교음악원이 개원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음악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음악원은 기존의 불교음악에서부터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불교음악의 연구와 보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음악의 역사적 틀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한

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불교음악은 신심을 표현하는 지극한 공양이다. 지난 봉축 때 봉은국악합주단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오늘을 계기로 조계종 전국 사찰에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합주단 창단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제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국악인 박애리·남상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봉은

###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서 박애리 남상일 재치 넘치는 사회 도신 스님 김성녀 김묘선 등 출연

국악합주단 김희경 총예술 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봉은국악합주단의 연주와 더불어 봉은사 어머니합창단, 조계사 혼성합창단이 참여했으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김성녀, 김묘선, 유지숙, 도신 스님, 최수정, 민은경, 사물광대 등이 협연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불교음악원 및 봉은국악합주단 탄생을 기념하여 교성곡 ‘붓다’ 중 ‘아! 탄생’으로 문을 열었고 연잎바람, 찬미의 나라, 보렴, 백팔번뇌 등

다양한 찬불가와 승무를 위한 관현악, 사물놀이 등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까지 여러 음악이 선보여 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불교신도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은 국악선율로 펼쳐지는 찬불 무대를 감상하며 불교음악에 매료되었다. 음악회를 관람한 김기욱(54) 보살은 “산사음악회는 많지만 순수 국악만을 연주한 사람음악회는 처음인 것 같다. 사실 교회는 연주단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못해 늘 아쉬웠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주단이 생겨 너무 기쁘다. 앞으로 봉은합주단이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봉은사 합창단인 아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음악회에 참석했다는 변창진(48) 씨는 “강남 한복판 삼성동에서 이렇게 국악연주가 울려 퍼지니 무척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봉은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사찰인데 이런 음악회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회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음악회를 감상하게 되었다는 김청명(78) 보살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찬불공연이 너무 발전한 거 같아 기쁘고 공연도 너무나 훌륭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기쁨의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창단에 큰

기여를 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의 말들도 줄을 이었다. 현재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원학 스님은 “하루빨리 오해가 풀려 불교음악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그 원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성녀 씨 또한 “박범훈 전 수석과는 불교음악 운동을 같이했다. 시댁도 친정도 다 불교집안이었지만 불자라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내가 불교 음악 운동을 하면서 진정 불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박 전 수석을 위해) 많은

### 불교음악의 연구와 발전 ‘기대’

### 창단에 기여한 박범훈에 응원 메시지도 400여 사부대중 모여 흥겨운 한마당

분들의 기도 부탁드린다”며 애석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봉은국악합주단은 영산회상을 비롯해 전통불교음악 및 예불의식음악과 찬불가를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배합 앙상블로 연주함으로써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불교계 최초로 창단된 국악합주단체이다. 지휘자 및 연주자 총 12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해 주목받아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불교음악원은?

### 불교음악 새지평 ‘불사’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조계종 종령기구로 종단 최초로 설립된 불교음악 교육 기관이다. 과정은 불교음악 최고위과정, 불교음악 지도자 과정, 찬불가 교육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등으로 나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불교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합창단 중심의 찬불가를 지향하며 동시에 불교 포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희경 음악감독은 “불교음악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불교음악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교음악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불교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출판 음악 공연기획 등 불교음악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불교음악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 불교음악원은 세계 불교음악 페스티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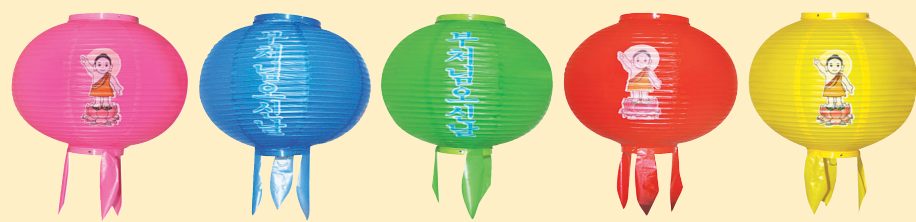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 인등시공 |



### | 만 월 등 |



### | 공 단 등 |



### | LED 전구 |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 | 극락왕생등 |



### | 영가등 |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